직산현 관아(稷山縣 官衙)

조선시대 충청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직산현의 관아 건물이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조선후기 직산현에는 객사 19칸, 군기고 6칸, 동헌 14칸, 내아 30칸 등 많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외삼문과 내삼문, 외동헌, 내동헌 4동만 남아 있다.

관아의 정문에 해당하는 외삼문에는 '호서계수아문(湖西界首衙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말 그대로 '호서지역 경계의 머리에 해당하는 아문'이라는 뜻인데, 경기도 땅에서 호서 땅으로 들어서는 경계의 첫 머리에 위치한 직산현의 지리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삼문을 지나면 동헌 앞에 자리한 내삼문이 있는데, 가운데 칸에 출입문인 솟을대문이 있고 양 옆에는 관아의 각종 기물을 보관하던 창고 방이 달려 있다. 내삼문의 안쪽에는 고을의 수령이 업무를 보던 건물인 외동헌(직산면사무소로 사용되기도 함)과 수령의 살림집에 해당하는 내동헌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헌은 수령의 집무공간으로만 알고 있는데, 직산관아의 경우 외동헌과 내동헌이 모두 남아 있어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자료제공 : 충남역사박물관〉